

12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-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- ②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.
-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.
-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.
- ⑤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.

(가)

선지	문학개념어	효과
①	<del>색채의 대비</del>	시적 분위기를 조성
②	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	주제를 형상화
③	<del>시선의 이동</del>	화자의 심리적 추이
④	<del>음성 상징어를 활용</del>	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
⑤	시간 표지를 활용	<del>화자의 인식 전환</del>

(나)

선지	문학개념어	효과
①	<del>색채의 대비</del>	시적 분위기를 조성
②	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	주제를 형상화
③	<del>시선의 이동</del>	화자의 심리적 추이
④	<del>음성 상징어를 활용</del>	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
⑤	시간 표지를 활용	<del>화자의 인식 전환</del>

13.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[A] ~ [E]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- ① [A] : 자연물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한 자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.
- ② [B] : [A]에서 주목한 자연 현상을 유추를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.
- ③ [C] : [B]에 나타난 삶에 대한 이해가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.
- ④ [D] : [C]에서 얻은 삶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회한이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.
- ⑤ [E] : [A]~[D]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화자의 소망으로 집약되고 있다.

**1번 선지**, 오동은 고목이 되어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.

**2번 선지**, 오동은 고목이 되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면서,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라/ 수많은 구멍으로 빛어진 삶의 빈 고목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삶과의 유사성을 말한다. 즉, 유추를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.

**3번 선지,** 위에서 삶에 대한 이해를 하고, '거문고 소리가 아닌들 또 어찌랴' 고뇌의 피리새라도 한 마리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다면 / 텅 빈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랴라는 의문형 진술을 반복하며, 나를 비우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삶까지 확장되고 있다.

**4번 선지,** 바람은 쉽없이 상처를 후비고 / 백금칼날처럼 햇볕 뜨거운 한낮은 삶의 시련의 시기이다. 회한이라는 지 나간 것에 대한 후회이기 때문에, 고통받는 시간 자체를 회한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며, 화자는 후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.

**5번 선지,** 결국 화자의 남은 소망은 잘 마른 구멍하나 가꾸고 싶다는 것이다.

14. <보기>를 바탕으로 (가)와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4점]

— <보 기> —

존재는 스스로와의 결별을 통해 성숙한 존재로 완성되는데,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고의 시간을 수반한다. 그리고 존재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극복할 때,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다. 따라서 시련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을 돕는 환경이 된다. (가)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시련에 대해,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. (나)는 스스로 만들어 낸 시련을 견뎌냄으로써,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어 가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.

- ① (가)에서 '구멍'은 '피리새'가 서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를 포용하는 공간이고, (나)에서 '동굴'은 '하늘백성'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.
- ② (가)에서 '한 마리'가 '세 들어 새끼칠 수 있'는 것과 (나)에서 '누에의 왕'이 '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.
- ③ (가)에서 '삶'을 '향기롭'게 하기 위해 구멍을 '가꾸'어야 한다는 점에서, (나)에서 '날갯짓'을 시작하기 위해 '안쪽에서 뚫어야' 한다는 점에서 모두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군.
- ④ (가)에서 '한낮'은 '상처'가 후벼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, (나)에서 '긴 밤'은 '고통'스러운 '연금술'이 진행 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.
- ⑤ (가)에서 '육탈'은 '잘 마른 텅 빈 육신'을 위한 비움의 과정인 반면, (나)에서 '변모'는 '없었던 날개'가 창조되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.

**선지 2번,**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을 돕는 환경은 시련이다. 한 마리가 '세 들어 새끼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포용한 결과이며, '누에의 왕'이 '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시련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. 한편 (가)에서 시련은 바람은 쉽없이 상처를 후비고 백금칼날처럼 / 햇볕 뜨거워 이승의 한낮'이며, (나)에서 시련은 '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추고,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'이다.